서울대학교 동창회 미시간지부 연혁

1970년 미시간지역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회 창립.

1979년 디트로이트지역의 자동차산업에서 일하는 서울대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KPAI (Korean-American Professionals Automotive Industry 재미한인자동차산업인협회)가 창립되었고 제 1 대 회장으로 윤철구(법대 58) 동문이 선출됨. 이후 KPAI의 성장을 위하여 서울대 동창회를 만들어보려는 노력은 한동안 기울이지 않게 됨.

1990~2000 년대 한국자동차산업이 미국에서 성장을 거듭하며 KPAI도 서울대 동문들의 영향을 벗어나 독자적인 단체로서 큰 성장을 거두게 되었슴. 이로서 미시간 서울대 동창회의 창립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게 되었슴.

2018 년 1월 서울대 동창회 미시간 지부 창립이 일부 동문들에 의해 시도됨.

2021 년 10 월 창립준비 모임을 온라인(zoom)으로 갖고 22 명의 동문들이 참석함. 정무형(문리 70) 동문이 임시회장으로 선임됨.

2022 년 5월 정무형 임시회장의 영구귀국으로 총무를 맡고 있던 이광진(공대 81)동문이임시회장을 맡게됨.

2022 년 5월 30일 임시 임원단 9명이 이광진 임시회장의 자택에서 회의를 갖음.

2022 년 6월 24일~26일 세명의 임시 임원단(이광진, 조호정, 한영신)이 LA에서 열린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 참석에 참석하고 미주동창회로부터 미시간 지부 창립을 승인받음.